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1호 【루계 제 25214호】 주 105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트발사훈련을 보시였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항도따라 당 제 7차대회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영웅조선의 만리마가상이 하늘끝에 달아있는 격동적인 비약과 전진의 시대인 오늘 우리 인민군대앞에는 조선의 힘과 불변의 의지앞에 전몰한 미제와 그 추구들의 최후발악, 전대미문의 피비린내 풍기는 침략전쟁광기를 무적결승의 총대의 위력으로 제압분쇄하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 혁명의 운명을 굳건히 보위해야 할 중대한 역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적들의 발광적인 침략전쟁연습소동으로 남녘땅이 화약내질은 전쟁터로, 핵살인장비의 전시장으로 변해버린 지금 우리 조국과 혁명앞에는 시시각각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이 가로놓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투명령에 따라 조선반도에 최악의 핵전쟁발발국면이 조성되고있는 엄혹한 정세속에서 강위력한 우리의 핵억제수단들을 장비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기동을 배합한 탄도로켓트발사



으로 진행됨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일군들과 핵무기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성원들에게 핵무기운영 체계를 더욱 완성하고 주체적인 탄도로켓트들을 옮겨 불러 나가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당에서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핵무기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핵탄

훈련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트발사훈련을 보시였다.

황병서동지, 리병철동지, 홍승무동지, 김정식동지, 윤동현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일군들, 핵무기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발사훈련을 함께 보았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 김락겸대장이 지휘하는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은 최고사령부로부터 받은 불의기동명령에 따라 발사구역으로 신속한 기동을 진행하면서 화력타격부대들의 경상적동원준비

태세와 높은 기동능력을 파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사훈련장에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대장의 화력타격결심을 청취하시고 비준하시였다.

전략군사령관의 발사구명에 따라 전동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밤의 정적을 깨고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위력한 탄도로켓트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이번 탄도로켓트 발사훈련은 해외침략 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것으로 가상하여 목표지역의 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들 폭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로켓트발사 훈련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투적위력이 남김없이 파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높은 기동력을 갖추고 적라격대상에 따르는 올바른 사격방법을 적용한 전략군의 이번 화력타격훈련이 성과적

적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켓트연구부문의 협동을 더욱 강화하여 핵타격능력을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 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들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무기 연구부문에서 핵탄두취급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국가최대비상사태시 핵공격체계 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전략적핵무력에 대한 유일적령군 체계,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움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호전광 박근혜무리들이 우리의 중대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미제침략군과 추종국가군대들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과 미국의 수타한 핵전략장비들까지 껴싸늘어모아들어 사상최대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극히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강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핵전쟁도발을 걸어온 이상 이에 따른 우리의 자위적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발사훈련을 보시였다



## 1 번 예 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이 류레없는 악랄한 대조선《제제결의》를 조작해낸데 이어 우리의 눈앞에서 극악무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있는것은 우리에게 대한 정치경제적압박과 군사적위협을 극대화하여 우리를 조금이라도 흔들어버려는 어리석은 통상속의 허위적거리고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리며 우리의 생존공간을 핵침화속에 몰아넣으려고 최후 발악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핵전쟁도발광풍을 우리 공화국정부와 군대와

인민은 더이상 눈뜨고 지켜만 보고있지 않을것이라고, 우리는 적들이 잘못된 시기에 잘못 내린 저들의 판단과 대책없는 망동질을 놓고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것이며 그들 위하여 우리 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면발적으로 취해나갈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배당이 극도의 복침야망에 들떠 존엄을 우리 국가를 향해 또 다른 군사적망동질이나 서투른 자작극을 벌려놓는다면 그에 는 괴뢰반동정권이 영원히 생존할수 없게 물리적으로 얻어맞고 사멸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엄중히 경고하였지만 박근혜

《정권》이 임기 마지막날까지 불운이 드리운 저들의 비참한 운명을 괴해가려면 자중, 자숙하는 김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이 눈앞에서 그 어떤 위협천만한 불장난질을 해댄다 해도 결코 눈섭 하나 까딱할우리가 아니지만 신성한 우리 조국의 일목일초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핵수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라격수단들에 즉시적인 공격명령을 내릴것이며 박근혜《정권》의 정수리와 괴뢰군부광페루리들에게 생존이 불가능한 실명적인 불세례를 들의울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민유직한 핵무장력인 조선인민군 전략군장병들이 이 세상 그 어떤 침략과 전쟁으로 부리도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무분별한 전쟁광신자들에게 주제의 군사적대용방식이 어떤것인가를 특별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와 박근혜역적배당이 독침광기를 부리다 맥이 진하고 김이 뺄때까지 남조선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제침략군기지를 폭력으로 삼은 전략군의 모든 핵타격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준비태세를 갖추며 대하여 명령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체 장병들은 적들이 어리석게도 우리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참수작전》을 떠들며 사소한 군사적망동이래도 부린다면 하늘끝까지 치달고있는 우리 천만군민의 무서운 보복열기를 총폭발시켜 영웅조선의 본태를 다시 한번 가슴후련하게 보여주고 우리 민족의 최대속원을 성취할 결사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지도반

## 김정은령도자께서 핵선제라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선언하시였다

###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신 소식을 9일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 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국방과학부문의 전문가들이 나라의 핵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각이한 전술 및 전략탄도로켓제작에 커다란 주의를 불리시고 탄도로켓전투부대에 장착할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구조작업원리를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가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할 때에는

주저없이 핵선제라격을 가할것을 선언하시였다. 중국의 신화 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핵시설들의 정상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하며 핵무기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이미 실전준비한 핵타격수단들을 부단히 경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영국의 로이 터 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핵부문의 관계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보다 위협하고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데 대해 강조하시

였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VOA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께서는 열혈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제작된 핵탄두가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핵선제라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미국이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할 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범타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퇴통신, 인메르콧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카야 가제타》, 《모스콥스키 공소블레트》, 《레도모스키》, 《브즈글라드》, 《아르구멘타 이 락미》, 연페체TV방송, 로씨야 24TV방송, 텔트르TV방송, 인터넷통신들인 엔마, 루, 포레스폰트, 뉴스우, 폼, 메그뉴, 인터넷TV채널 24,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환구망, 이란의 라스남통신, 프레스TV방송, 이리브방송, 인디아의 《뉴스 24》TV방송, 인터넷-아시아통신, 알제리의 신문 《알 나하르 알 제디드》, 인터넷신문 《알 빌라드》, 미국의 UPI통신, 폭스뉴스, 신문 《워싱턴 타임스》, CNN방송, 영국의 BBC방송, 도이체판트의 데게아통신, 스위스의 통신, 신문 《트리뷴 제네브》, 벨기에의 통신, 신문 《노비니테》, 체코의 인터넷통신 노민기, 오스트리아의 ABC방송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로씨야, 이란, 알제리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편찬을 모시였다.

## 조선은 자주권침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여러 나라 인 사들 강조

미제와 남조선괴뢰배당의 팽창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외국인들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벨기에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장 성원 밀텐 일리에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하여 인류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죄는 나라이다. 남조선에는 방대한 미군부력이 주둔하고있으며 그들이 임의의 시각에 조선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조선은 이라크와 리비아사태를 잊지 않고있다.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 이따리아위원회 위원장 미러암 벨레그리니 베리는 조선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받고있다. 조선이 미국의 끊임없는 세 전쟁도발책동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강화발전시킨것은 웅대한 자위적조치였다. 조선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한 적이 없으며 자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벨기에의 동아시아문제전문가 나르 스페와노브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장장비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해마다 대규모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데 이것은 조선을 침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적들이 음모적이건 해도 주시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누구도 자기의 자주권을

나아가고있다. 이에 불만과 공포에 질린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아보고자 갖은 말쑤를 다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은 공명연히 묵인할수 없으며 방해하는 미국의 전횡과 불공평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나라의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가로막지 못하겠으며 조선의 명목에서 불 한포기라도 다친다면 저들의 멸망만을 가져올것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진보를 이룩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자기가 선택한 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환영서동지, 박영식동지, 리명수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종사령관들과 군단장들이 맞이하였다.

탱크병지휘관들, 각급 군사학교 교원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경기대회는 전군에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백두산훈련열풍의 불가마속에서 모든 탱크병부대, 구분대들을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갖춘 무쇠철갑대로 철저히 준비시켜 기동타격부대들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함으로써 일단 명령이 내려면 멸적의 무쇠탈출으로 적들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짓동개버리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기대회는 추첨으로 정한 군단별 순서대로 출발한 탱크들이 경기주로의 9개 계선에 설치한 장애물을 극복한 다음 이동 및 부동목표에 대한 사격을 진행하고 장애물극복은전점수와 탱크

포사격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대회에는 군단들에서 선발된 탱크승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시소

에서 경기대회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출발구멍이 내리자 무쇠철갑의 동음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맞닥

는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영웅한 탱크병들의 담대한 배짱을 과시하며 탱크들이 질풍처럼 내달리였다. 실전을 가상하여 설치한 각종 장애물들을 단숨에 극복한 탱크들이 목표들

을 향해 원추격멸의 포란을 날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노도치는 무쇠철마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탱크들이 장애물들을 넘어야 할데 정말 훌륭하다고, 탱크는 인민군대의 기상이라고 하시면서 가슴이 후련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멸적의 동음소리와 함께 탱크병들의 가슴마다에 용맹을 안겨주며 울려 퍼지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힘찬 메아리로 하여 훈련장이 아니라 전장운 방불케 한다고 하시면서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기대회는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하늘과 땅, 바다소리를 칠용생감이 지키고 있는 전군의 장병들이 일단 명령이 내려면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백두의 폭풍과 같이, 백두의 번개와 같이 단숨에 달려나가 이 세상 제일 너절한 미제와 피뢰적들, 그 추종무리들을 바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목사발 만들것이라는것을 단호히 보여주었다.

4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시였다



### 3 면 에 서 계 속

경기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제108기계화보병사단이 1등, 제3군단이 2등, 제105탱크사단이 3등을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대회가 끝난 다음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에서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된 경기대회를 통하여 지휘관들이 탱크병싸움준비를 어떤 관점과 필장에서 보고 대하며 훈련장도를 얼마나 높이고있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탱크병들의 전투적사기와 혼

면에 대한 욕망, 탱크운전수들의 능력을 높여주는데서 아주 좋은 훈련방법인 이런 경기대회를 앞으로도 자주 조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탱크병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무쇠발톱으로 적진을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잘아누히며 제일먼저 서울에 돌입하여 괴뢰중앙청에 공화국기발을 꽂은 근위 서울유격수제105탱크사단 312호 영웅탱크병들의 싸움본래와 투쟁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이 탱크병싸움준비에 힘을 넣고 우리 나

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탱크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할데 대한 문제, 산악과 진펄, 강하천을 단숨에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탱크운전기술과 사격술을 부단히 높이는것과 함께 승조협동동작을 완성할데 대한 문제, 부대들의 훈련장을 실전을 가상하여 더 잘 꾸릴데 대한 문제, 만능승조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탱크병싸움준비 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싸움준비에서 태일이만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장비들이 자나깨나 오직 원수적면의 의지로만 실장을 불태우며 그 어느 훈련도 소홀히 하지 말고 병종,

전용병훈련을 비롯한 싸움준비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천금같은 기회는 우리가 먼저 선택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지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실전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고 고도의 격투상태를 유지하여 원수들이 감히 신성한우리 조국강토에 선불질을 하려고 날뛰면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용감한 탱크병들이 조국과 인민이 마련해준 무쇠철갑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고 뜻깊은 올해를 전

투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으로 빛나게 장식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6》은 불패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는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모신 우리 인민군대는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강군으로 그 이름 빛내일 것이며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열거지들이 우리 삶의 귀중한 터전을 노리고 움푹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자비하고 단호한 보복타격으로 모조리 정벌할것임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